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다. 작년 11월 넷째 주부터 주별 평균 지지율 흐름을 보면 33%-37%-37%-39% 그리고 41%의 흐름세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졌다. 새해 초 조사들도 대부분 40%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이다. 반대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63%-60%-59%-57%-57%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전이다.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12월 27일까지 조사일 기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222개(면접조사 63개, ARS 159개)다. 대통령 지지율이 주별 평균으로 50%를 넘은 것은 취임 이후 딱 5주 차까지였다. 이후 주별 평균으로 40%대를 3주 동안 기록한 다음 11월 넷째 주까지 3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8월 첫 주와 둘째 주는 2주 연속으로 주별 평균이 30%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한다.

문제는 반전 회복세의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느냐다. 대통령 임기 중의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의 총선 승부를 결정한다.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멀어지는 선거일

‘정치하는 대통령’

수록 대통령과 여당에는 불리하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 당선(3월 9일)과 취임(5월 10일)의 중간인 4월 10일로 만 2년의 윤석열 권력 심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정 안정론’(44%)과 ‘국정 견제론’(46%)이 팽팽하다. 중도층은 ‘야당 후보 지지’(48%)가 ‘여당 후보 지지’(37%)에 앞선다.

경제 상황은 대통령 지지율의 기조인데 무척 나쁘다. 작년 한국 경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무역 적자 또한 역대 최대치였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수출도 하락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은 율해도 이어지고 성장률은 1%대라고 한다. 소상공인의 56%는 경영 환경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회복세를 기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 악화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지키기의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낙오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요구된다.

올해는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 평가의 총선을 향한 ‘대통령의 시간’이다. 윤석열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총선이다. ‘윤석열 어젠다(Agenda)’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의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는데 어떤 성과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부패에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55%가 동의했다고 한다. 일부는 윤 대통령이 파업 사태 등에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 지지율 회복세로 이어졌다고 해석한다. “노동부패 척결” 기조가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 요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 이유로 대부분이 ‘결단력’과 ‘공정과 정의’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색깔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계획된 것인지 우발적인지 알 수 없지만 새해 초 대통령이 언급한 선 거구제 개편의 정치 개혁까지 ‘윤의 정치’는 보다 확실해진다. 당장 여당 내 반발 또는 불안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관심이다. ‘윤심’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전당대회 판세는 ‘민심에서는 유승민, 당심에서는 나경원 선두’로 요약된다. 자칭 타칭 친윤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다. 나경원 출마 여부도 첫 번째 분수령일 텐데 ‘윤심’은 끝까지 전략적 호호성과 함께해야 한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고 적어도 그때까지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력이 핵심이다. ‘공동체 지키기의 정치’도, ‘윤석열 어젠다’의 구체적 성과 창출도 그리고 ‘윤석열 색깔의 정치’도 그의 정치력에 달렸다. ‘정치하는 대통령 윤석열’을 기대한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원불교의 창시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박종빈 1891~1943)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교단을 창립하였고 교화 활동을 한 분이다. 크게는 모든 인류가 잡다운 행복을 얻는 길을 가르쳤고, 가까이는 우리 민족이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민족이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실천했다.

소태산 대종사는 몇 번 제자들과 금강산을 다녀오게 되었다.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그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큰 보물이 있다”하고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면 조선이 다시 동방의 빛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희망적 예언이었다. 당시의 형편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니 내선일체를 내세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시기였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매우 불확실하던 때였다.

그러한 시점에 대종사께서 “우리나라는 금강산으로 크게 드러날 것이고, 이 나라는 정자 세계 정신의 지도

민족의 희망, 금강산

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요즘 이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거나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도 믿어지지 않는 말로 들릴 터인데, 암울한 일제 치하에서 대중사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갖고 말했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희망을 키워 왔다.

해방이 되자 제자들은 이제 좋은 나라가 되는가 보았으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지 못한 채 분단을 당하고 6·25의 비극을 겪게 되고, 그로부터 끝없는 대립을 키우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조금씩 화해와 통일의 길이 트이고 금강산을 가볼 수 있는 관광길이 1998년 11월 18일 열리고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그렇게 햇볕정책과 맞물려 결실을 맺어 바로 대종사님의 예언대로 통일의 물꼬가 트이게 보다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2008년 7월 11일 관광개 피격 사망으로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된다. 다시 2009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하나인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고 계속 이어지는 위협과 반목 이런 저런 이유로 전망이 막막하게 되었다.

칠순이 넘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퇴직을 하면 금강산에 가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가겠

지, 내년에 가겠지 하며 지나다가 벌써 15년이 지났으며 이제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금강산은 관광상품이기 이전에 다시 협력하여 개발한다면 남과 북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민족통일을 이루는 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금강산이 세계에 알려져 누구나 관광을 희망하는 곳이 되면 자연 세계인의 아낌을 받게 되고 서로 힘을 다해 인류 공동의 자원으로 기구게 될 것이다.

옛날 송나라의 문인 송동파는 “고려국에 가서 금강산을 한 번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 하였다 한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은 그의 여행기에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하고 있다”고 했다. “경의선은 철도가 아니라 경제입니다”라고 말한다. 경의선은 바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의 연결되는 물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바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현대의 전쟁은 영토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라고 한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체제의 변화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낸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과 자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강산으로 인해 크게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2023년 새해 기대와 희망을 걸어 본다.

기고



김재권  
전남도 도로교통과 주무관  
공학박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해 신년의 소망을 빌고 결의도 다짐 겸 지난 주말 고흥 거금도에 다녀왔다. 한적한 겨울 바다가 보고 싶기도 했다. 멋진 바다를 보면서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술도 좀 줄이고 하는 개인적 다짐도 하고, 올해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연간 업무 로드맵도 고민해 보았다. 나름 결의를 세우며 한가로운 운전을 하던 중 울창종량한 섬들이 놓여 있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어 잠시 차를 세웠다.

오전항이었다. 항구에 여유로이 정박되어 있는 어선들과 쪽빛 바다가 놓여 있었다. 그 바로 앞에는 동해바다 끝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섬의 명명 원조인 조그마한 독도가 있다. 입구에는 ‘국도 27호선 시점 오전항’이라고 쓰인 거대한 표지석도 있다. 바로 이곳이다.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인 고흥-완도 42.4km 구간이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된 곳의 시작점이다.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 꿈을 위해 현재는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지한파

전남 SOC의 또 다른 100년을 꿈꾸며

인 미국 하와이대학교 정 데미토 교수의 말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착실히 준비해 온 전남은 지난해 ‘SOC 르네상스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소외와 낙후의 대명사였던 전남이 민선 7기 이후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신안 압해-압태 전사대교, 여수 화양-적금 백리섬섬길 등 29건의 주요 국가 기반시설 사업에 11조 8000여 억 원을 들여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가계획에 핵심 기반시설인 전라선 고속철도를 비롯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16건 13조 6443억 원의 사업을 반영시켰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속원이던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비금-압태 연도교 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고흥-완도, 고흥 봉래(나로우주센터) 2개 구간이 국도로 승격해 서남해안 관광벨트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SOC 39개 사업에 1조 5466억 원이 투입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압태 연도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에 발주할 수 있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 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 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도로와 철도, 교량,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덕분에 전남도의 국도 예산이 사상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올해도 전남도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3046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연륙-연도교 건설에 2101억 원 등 1조 572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직원 모두는 말 그대로 문턱이 닳도록 서울 여의도와 세종을 방문해 설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 요청 사항 대부분이 반영돼 2023년 국가 예산안이 확정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제 전남 SOC의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야 된다. 우선 핵심 국가 계획에 반영된 고흥-완도 간 국도 건설 등 16건의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주요 국가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현재까지 국가 계획에 상당수 지역 사업들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서울-제주 고속철도(178km, 16조 8000억 원), 광주-고흥 고속도로(87km, 5조 9000억 원), 광주-영암-진도 고속도로(107km, 5조 2000억 원) 등 여전히 많은 SOC 사업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 국가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차분히 미리 준비해야 된다.

아프리카스를 향해 알을 깨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社說

여야 정치권, 5·18 교육과정 재수록 힘 모아야

교육부가 ‘2022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이 빠진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교육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80개 교육단체도 “개정 교육과정은 정의로운 역사교육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마비시키는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도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술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뿐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도 같은 이유로 5·18을 중학교 역사교과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교육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80개 교육단체도 “개정 교육과정은 정의로운 역사교육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마비시키는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도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1년 만의 웃음꽃’ 무료 급식 중단 다신 없도록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무료 급식소 운영이 재개되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광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끼니 해결에 큰 도움을 줬던 북구 두암동 ‘천사 무료 급식소’가 14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이다.

그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천사 무료 급식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했지만,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3~4시간 전부터 입구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길바닥에 신문지·폐지·박스 등을 깔고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 힘든 상황인데도 이들의 얼굴에는 지루함보다는 활기가 넘쳤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 먹는 냄새가 퍼지자 인근에 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줄지어 몰려 들었다. 급식소 측은 예상 인원 350명보다 훨씬 많은 500명이 찾았음에도 있는 재료를 총동원해 이들 모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천사 무료 급식소는 평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우산근린공원 인근에 자리한 탓에 점심 끼니 해결이 마땅치 않은 취약계층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안으로 지난 2021년 10월 부득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곳을 이용했던 일부 어르신들은 힘든 일상을 보내야 했다.

1년여 만에 무료 급식이 재개된 것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 무료 급식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무료 급식소들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후원금이 줄어들면 무료 급식소들이 다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민간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무료 급식소 운영이 또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느 국가든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나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하지만 결과는 사고의 규모나 피해에 비해 의외인 경우가 많다. 예견했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 부패 등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나 사소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들이었다.

1986년 1월 28일, 발사 과정이 생중계로 방송되는 가운데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만에 일곱 명의 우주인과 함께 폭발하고 만다. 제작비가 수조 원에 달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우주왕복선이지만 사고 원인은 기체나 추진체 같은 결함이 아닌 단순한 고무링의 문제로 밝혀졌다.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는 우주선의 폭발 원인을 원형의 링, 즉 오링(O-ring)의 부식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우주선의 오른쪽 고체 로켓 부스터의 조인트를 밀봉하는 오링이 추운 날씨에 제 역할을 못하면서 고온 가스가 분출됨에 따라 결국 폭발로 이어졌던 것이다. 오링은 엄청난 고온과 압력을 로켓 동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밀폐해 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꽤나

두껍고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6.4mm 두께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 1999년 9월 2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쏘아 올린 1300억 원 짜리 화성 궤도선도 기술진의 계산 실수가 폭발 원인이었다. 이 사고는 우주항행 소프트웨어를 만든 기술진은 로켓 분사와 관련해 길로그램 단위를 사용했지만, 우주선 제작팀은 파운드 단위를 적용한 탓에 우주선이 예정 궤도보다 낮게 진입하면서 대기 압력과 마찰을 견디지 못해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원도 원주 상공에서 발생한 KF-16C 전투기 추락 사고도 ‘너트 하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지름 5.5cm, 두께 1cm에 불과한 너트 하나를 안 끼우는 바람에 400억 원대 전투기를 잃고 만 것이다. 이태원 참사도 소수의 현장 통제 요원만 있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은 부품 하나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듯, 기분을 지키지 않는 작은 행동이 재난을 몰고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程厚植</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0-0195)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